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평가와 분석

Online Series

2020. 7. 15. | CO 20-14

장 철 윤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상반기 총 18회 공개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이후 예년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에 비해 가장 적은 수준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향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상반기 전체 공개활동에서 군사분야(10회)가 차지하는 비중(55.6%)이 월등하게 크며, 경제분야(1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작다. 2018년 이후 활발했던 대남 및 외교 등 대외적인 공개활동은 2020년 들어 전무하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보인다. 군사훈련 참관 및 군부대 시찰이 3~4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은 동계훈련 참관 및 대남 불만 표시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2020년 하반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권 이후 역대 최저 ... 군사분야가 절반 이상

북한 매체의 보도를 기준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2020년 1월 2일 새해를 맞아 금수산태양 궁전을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18회의 공개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외국 정상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받은 것은 제외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2020년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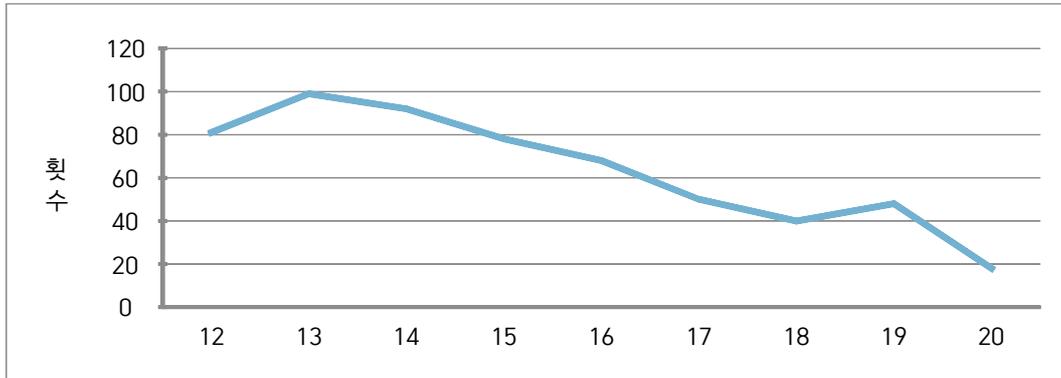
분야	대 내				대 외		계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대남	외교	
횟수	4	10	1	3	0	0	18
비율(%)	22.2	55.6	5.6	16.7	0	0	100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상반기에 보인 정치분야 공개활동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 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2.29), 당 중앙위 정치국회의(4.12), 당 중앙위 제7기 제13차 정치국 회의(6.8) 등 4회로 나타났다. 경제분야 공개활동은 순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 현지 지도(1.7) 1회에 불과했으며, 사회·문화 분야의 공개활동은 고 황순희 장례 문상(1.18), 설 기념 공연 관람(1.26),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 및 연설(3.18) 등 3차례에 그쳤다.

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군사분야(10회)인데, 군 합동타격훈련 지도(2.29), 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3.3, 3.10), 제7군단 및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경기 지도(3.13), 군 서부전선 대연합부대(제3군단, 제4군단, 제8군단) 포사격 대항경기 지도(3.21),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3.22), 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 포사격훈련 지도(4.10),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 관하 추격습격기연대 시찰(4.12) 등 군사훈련 참관 및 군부대 시찰이 8회에 달했다. 이 외에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지도(5.24),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 참석(6.24) 등 당 중앙군사위 회의 참석이 2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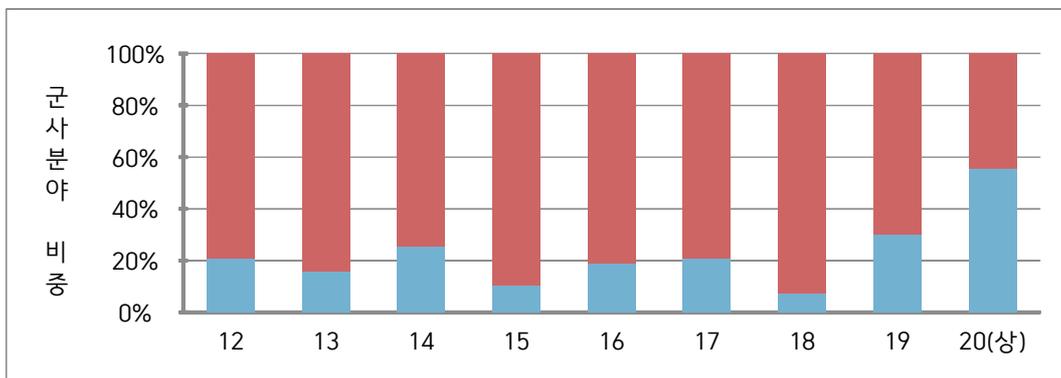
이와 같은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현황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적은 공개활동 횟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북한 매체 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필자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2012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나타난 공개활동 횟수는 <그림 1>과 같다. 김정은 위원장의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는 2013년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2017~2019년 40~50회 수준이었던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가 2020년 18회를 나타낸 것은 예외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 2012년 이후 매년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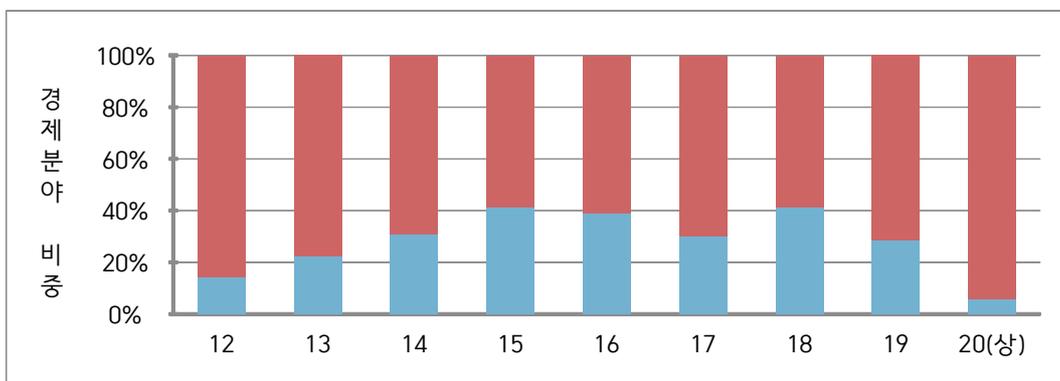
둘째, 2020년 상반기 전체 공개활동에서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하게 크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이 본격화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전체 공개활동에서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 2019년 21%에 불과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상반기 전체 공개활동 횟수가 이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5.6%)을 2018~2019년 경향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매년 전체 공개활동에서 군사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었던 적은 2020년 상반기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2> 2012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 군사분야 공개활동 비중 변화



셋째, 2020년 상반기 전체 공개활동에서 경제분야의 비중이 지극히 작다는 것이다.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전체 공개활동에서 경제분야 공개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20~40% 수준을 유지해왔다. 2019년까지의 전체 공개활동에서 경제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았던 해는 집권 첫 해인 2012년(14%)이었으며, 10% 이하를 나타낸 것은 2020년 상반기가 처음이다. 사회문화 분야 공개활동으로 분류한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 및 연설(3.18)을 경제분야에 포함시키더라도 전체 공개활동에서 경제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11.1%에 불과하다.

<그림 3> 2012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 경제분야 공개활동 비중 변화



넷째, 대남 및 외교 등 대외 활동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추진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2018년 4월 사실상 종료한 이후 매우 적극적인 대외행보를 보였다. 2018년 상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4.27, 판문점 평화의집 / 5.26, 판문점 통일각)을 개최했으며, 같은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의 북중 정상회담을 세 차례(3.25~26, 베이징 / 5.7~8, 다롄 / 6.19~20, 베이징)나 개최했고, 역사적인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역시 6월 12일(싱가포르) 열렸다. 2019년 상반기에는 김 위원장의 5차 방중(1.7~10, 베이징) 및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의 방북(6.20~21) 및 북중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2.27~28, 하노이), 북-베트남 정상회담(3.1, 하노이),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러(4.24~27, 블라디보스토크 등) 및 북러 정상회담, 남북미 3자 정상회담(6.30,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었다. 그렇지만 2020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대남 및 외교 등 대외적인 공개활동이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영향 … 하반기에도 제한 전망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단연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북한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북한의 보건·의료 인프라 및 시스템 등이 열악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확진자가 '0명'이라는 북한의 보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관련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북한 주요 인사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 관련 보도 사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김 위원장과 별도로 각종 현장을 시찰하는 박봉주 부위원장과 김재룡 총리 등의 공개활동(현지요해)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전하는 사진에서는 등장인물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당 중앙군사위 제7기 제5차 회의 예비회의(6.24)가 화상으로 개최된 이유도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상반기 공개활동 횟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공개활동을 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인원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동원된 인원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경우, 자칫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활동을 삼가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야 공개활동이 매우 적고, 군사분야 공개활동이 비교적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현상과 4월 중순 이후에는 당 관련 회의를 중심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경제분야보다는 군사분야 공개활동에 동원되는 인원의 선별 및 통제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당 관련 회의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군사분야와 당 관련 회의에 공개활동이 집중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남 및 외교 등 대외적인 공개활동이 전무한 것 역시 교착국면에 처한 작금의 한반도 정세뿐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편,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7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훈련 참관 및 군부대 시찰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예고한 이른바 '정면돌파전'과 '새로운 길'의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동계훈련 참관 등을 통해 군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동시에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외부, 특히 남한에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군은 통상 전년 겨울철부터 이듬해 영농활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4월 중순 이전까지 동계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3월 초순에 1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군 전선 장거리 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연속 지도와 4월 중순 공군부대 시찰, 제7·9군단(동부 중부·후방 주둔) 포사격 대항경기 및 제3·4·8군단(서부 전연·중부·후방 주둔) 포사격 대항경기, 제2군단(서부 전연 주둔) 및 제10군단(동부 후방 주둔) 등이 참가한 군단별 박격포병 포사격 훈련 등은 남한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 매체가 3월 22일 보도한 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참관은 2019년 처음 선보인 전술유도무기의 군 실전배치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범사격이 이뤄진 전술유도무기의 추정 사거리를 감안했을 때, 2019년 2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특히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하지 않던 기간인 6월 초·중순,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진두지휘한 대남 강경 언행으로까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확신하기 어려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은 적극적인 대미 행보를 자제하는 대신 보다 강경한 대남 언행을 취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국면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2020년 하반기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대내외 공개활동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부문 공개활동과 관련해 비교적 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경제분야 공개활동은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보다는 영내생활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적게 노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군부대 시찰 및 군사훈련 참관 등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적은 인원이 동원되는 각종 회의 참석 등의 공개활동이 지속해서 이뤄질 개연성이 커 보인다.

다음으로 대외부문 공개활동과 관련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실상 육해공 국경 폐쇄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및 외교분야 공개활동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월 초·중순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필두로 대남 강경 언행을 쏟아내던 와중에 북한은 남한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거절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방역을 위한 국경 폐쇄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한에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세가 확실하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북한 당국

이 판단해야만 김 위원장의 대남 공개활동 재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를 남한이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판단할 때에야 대남 공개활동에 다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이 한·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10일 담화를 통해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하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2020년에는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제1부부장은 ‘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그는 북미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으로 미국의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맹위를 떨치는 미국에서 대선 정국에 몰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입장을 단기간 내에 변화시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 이전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움직임 개연성도 현재로서는 크지 않아 보인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